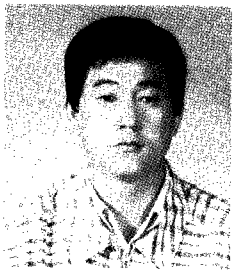
융자, 외상에 길들여진 경영방식을 버려야 산다.



송 복 근
무궁화농장 대표
전 동두천 채란분회장

최근 국내의 가용외환보유고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희소식을 접하면서 국내 양계업도 경기회복에 발맞춰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70년부터 근 30년을 양계에 몸을 담으면서 이번같이 어려움이 찾아온 때는 없었다. 모든 농가들이 경제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미리 예견이 되었더라면 무리하게 리스자금을 쓰면서까지 시설을 늘리지 않았을 것이고 사료도 외상을 배제하고 현찰로 거래를 했을 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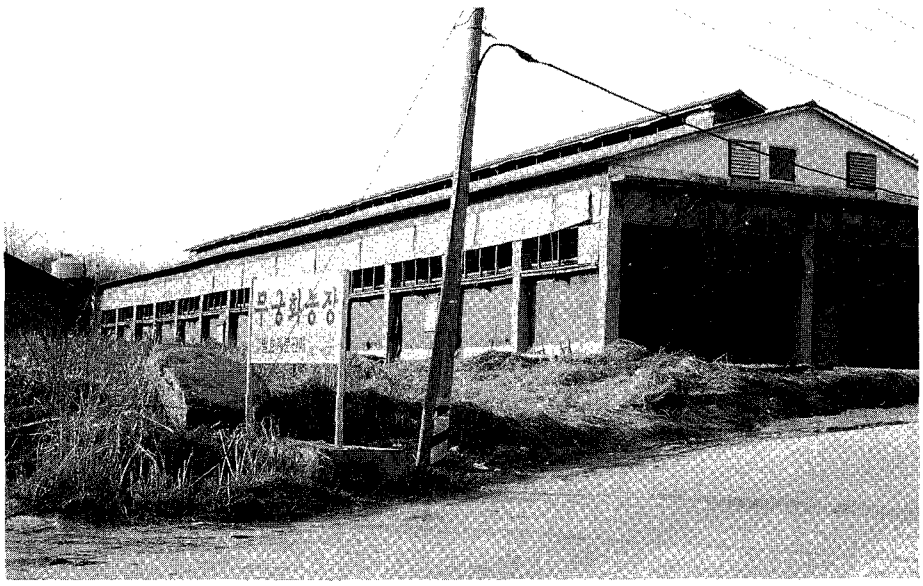
외환위기가 닥치고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실정을 보면 리스자금을 쓰며 경영을 잘해나가던 농가나 외상사료를 쓰다 현금결제로 전환된 농가들 모두 자금압박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가 오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스자금을 사용한 사람들은 현찰로 사료를 구매하는 농가들이 많아 최첨단 자동화된 시설을 바탕으로 생산비를 낮추면서 이자를 갚고 원금을 상환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보였다. 그러나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손이 커지면서 현 시점에서는 경제사정이 호전되기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리스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농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과거 외상사료를 사용한 농가들이 막상 현금으로 사료가격을 결제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다보니 채란농장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질병이 만연하면서 생산성도 최악에 이르고 계란의 유통구조도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있어 양계업을 경영하는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설 따름이다.

1.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자

자금사정의 악화는 많은 채란농장들에게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과거보다 육종이 발달하여 성성숙 일령이 빨라지고 능력도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료파동 이후 질병과 함께 생



산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주변 농장들을 통해 접할 수 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료의 질이 좋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료회사에서는 이미 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운임조로 기존보다 3%정도 사료가격을 인상하여 농가에 부담을 주고있는 실정인데 사료회사측 사정을 들어보면 이 수준으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료회사들은 영양소 함량을 낮춰서라도 경영적자를 만회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 우리농장은 사료파동이 일기 시작하면서 현재 부도처리된 C사의 사료를 공급받아왔으나 사료공급이 중단사태를 맞이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타 사료로 바꾸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료로 인한 피해는 없으나 같은 지역의 농가들은 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아 우리 농장도 예외가 될 수 없음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울때 일수록 생산비절감을 통한 철저한 사양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생산비가 많이 든다고 사료를 줄인다는 것도 닭의 생리상 어려운 문제이고 소비가 줄어 계란의 과잉생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80% 이상의 산란율을 보이는 닭들을 무조건 도태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사료의 공급사정이 원활해 지면서 다시 외상사료가 고개를 드는 느낌인데 사양가들은 될 수있으면 현금으로 사료를 써야할 것이다. 이는 농장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상거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이에대한 이자부담때문에 경영의 악화가 더욱 심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어렵다고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IMF 체제 이전보다 더 나은 경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최소한 자기농장에서의 생산비 절감방안을 찾아보면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농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바이오(Bio) 물탱크를 설치하여 모든 닭들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추는 믿을 수 있는 중추위탁사육자에게 병아리를 대주고 중추를 길러 위탁사육비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개를 받아 중추를 사는 것보다 당장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놓고 볼때 월등히 성적이 좋았음을 경험해오고 있다. 물론 중추관리시 모든 백신프로그램은 인근 지정 동물약품에서 일괄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생산비를 줄여가는 방법중의 하나로 계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사실 대부분의 농장들이 계분을 소득없이 치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치워가는 조건으로 오히려 돈을 지급한다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농장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최근 톱밥비용이 비싸 원료를 구입하는데 애로를 겪고는 있지만 계분발효시설을 통해 최소한의 인건비와 계분처리비용은 충분히 충당하고 있다. 그만큼 계분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도 비료관리법을 간소화 시켜 농가에서도 아무런 제제 없이 계분을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토의 지력향상을 위해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백색계 사육에 관심을

환절기를 맞이하여 질병이 속수무책으로 농장을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질병은 가금티푸스와 뉴캐슬병(ND)이며, IB, ILT 등 호흡기 질병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름에만 폭발적으로 나타나던 가금티푸스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농장

> “
> 질병 뿐만이 아니라
> 경제성면에서도 백색계가
> 갈색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 양계인들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 따라서 가금티푸스의 경우 이를
> 예방하기 위해서 백색계를
> 보급시키는데 전 업계적으로 동참을
> 해야할 것으로 본다.
> ”

의 경우는 최근 들면서 ND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ND의 경우 사독백신을 산란전에 한차례만 투여해도 발병이 전혀 되지 않던 것이 최근에는 110일령에 gell 혼합백신을 하고 산란피크 후 80%의 산란율을 기록할 때 보강접종을 하고 있는데도 꾸준히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상을 보면 산란율이 20~30%정도 떨어졌다가 2개월 정도 지난후 난각이 희어지면서 회복되는데 이때는 이미 산란피크가 훨씬 지난 후이기 때문에 이 계군은 경제성 면에서 쓸모가 거의 없게 된다.

농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ND가 발생했을 경우 영양제를 투여하는 정도의 손을 쓸 수 밖에 없다. 학계나 수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ND 변이형'이라고만 언급할 뿐 뚜렷한 확답을 받기가 힘들다.

예방약을 투여하였는데도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만큼 생산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농장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주었으면 한다.

가금티푸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94년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몇개 약품업체에서 백신을 개발하여 보급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백색계를 보급하자는 움직임이 양계협회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질병 뿐만이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백색계가 갈색계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양계인들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가금티푸스의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백색계를 보급시키는데 전 업계적으로 동참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백색계를 생산하는 부화장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 아니라 막상 백색란이 시중에 유통되어도 백색란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는 홍보를 통해 백색란 보급에 앞장서야겠지만 우선적으로 양계인들이 이에 적극 호응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농장은 금년부터 군납을 계약하여 계란출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올 6월에 백색계를 미리 계약을 해둔 상태인데 군납을 하거나 난가공 공장에 납품을 하는 농가들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백색계를 사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가금티푸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농가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직판시설 확대로 유통을 바로잡아야 한다.

유통이 바로잡혀야 생산자들이 마음놓고 생산에 힘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계란장사들이 농가에 보증금을 걸고 계란을 가지고 가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잉생산으로 주객이 전도되어 내가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고도 외상거래를 하든지 제값도 못받고 최저의 다운폭을 적용하여 판매하는 농장이 많은 실정이다.

계란유통 상황을 보면 과거와 지금 큰 변화없이 불합리가 계속되고 있다.

상인들의 80% 이상이 직접 농장과 거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생산자들의 입지를 펼 수가 없다. 따라서 생산자들의 여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판체제로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공판장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공판장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축협을 중심으로 판매장을 넓혀 최소한 50%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집하장도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인들에게 계란을 넘기고 있는 실정에서 일반농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집하장이나 일반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과거와는 달리 바로 직판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곳이 많아졌다. 직판시설을 이용해 오히려 자기농장의 품질을 소비자들로 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장의 경우도 농협과 축협에 직접 납품을 하기도 하는데 호응이 좋은 편이다.

생산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처럼 중간유통 마진을 우리의 몫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당면과제중의 하나인 것

이다.

현재의 직판시설은 축협보다 농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간의 제품을 같은 자리에 전시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도 생산자들의 참여폭을 더욱 넓힐 수 있고 소비를 한층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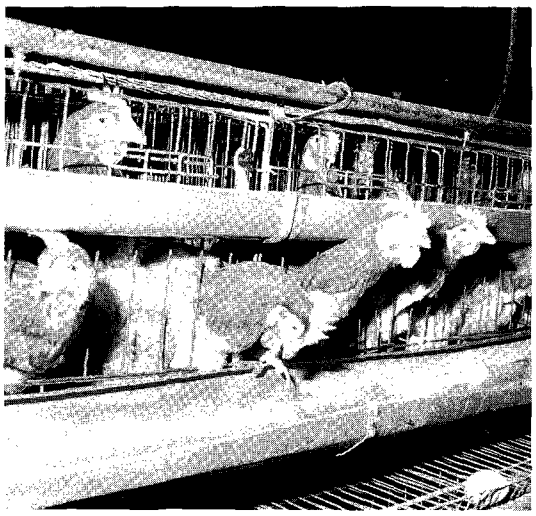
4. 협회를 구심점으로 단합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비율이 1달러당 1,200~1,300원 정도로 안정화가 될 경우 채란업은 큰 무리없이 업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료비가 이미 1달러당 1,500원을 기준으로 인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료가격은 이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도 이미 올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적정수준에 맞추고 홍보활동을 통해 계란소비량을 늘려갈 경우 농장경영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적정 생산량 유지와 계란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협회를 구심점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동두천 분회는 전회원들에게 팩스를 권장하고 있으며 모든 정보를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힘을 모아 서로의 정보를 통해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하며 농가입장에서도 스스로 자기분수에 맞는 농장경영이 무엇인가 정리를 해볼 때가 아닌가 한다.

지금도 일부농가에서는 손해인줄 알면서도 30%정도 생산되는 계군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을정도로 채란농가들의 사정이 어렵다.



이들은 사료값을 계란값에서 나오는 현금으로라도 막아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서두에 언급하였지만 어쨌든 경기회복이 가장 큰 변수이다.

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어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 사료원료가 고갈되는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

급 매

육계농장

위 치 : 충북진천(중부진천 IC 5분거리)
부 지 : 총 2,700평
건 평 : 총 1,000평(4동)
계 사 : 최신 H빔, 75mm, 50mm 판넬 시공
관리사 : 40평, 10평 2동
연락처 : 0434-32-3884
011-463-3885
012-453-3884